

기본료 0원·무제한 데이터...알뜰폰 다시 뜬다

‘기본료 0원’이라는 파격 요금제를 앞세운 우체국 알뜰폰을 찾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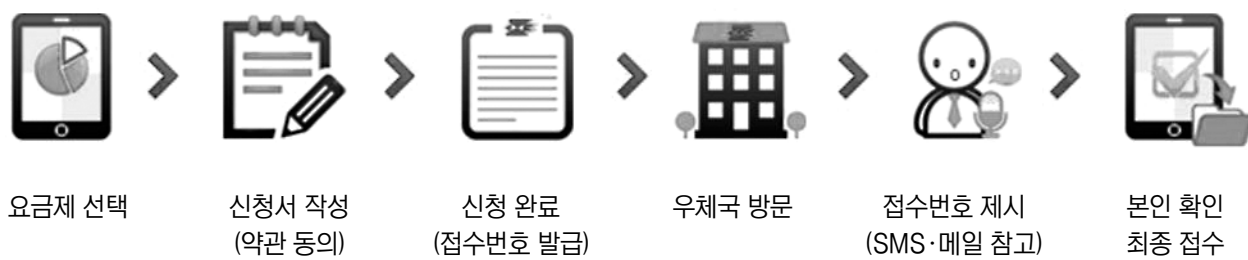
6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 지난 4월 기본요금 없이 무료통화 50분이 주어지는 ‘A제로’ 요금제에 첫날 4800여명이 가입했다. 전체 ‘우체국 알뜰폰’ 가입도 하루 만에 8713건을 돌파한 뒤 다음날 8412명이 추가로 가입했다. ‘우체국알뜰폰’ 하루 가입 건수가 평균 550건인 것을 고려하면 15.8배가 급증한 것이다.

▲실속파에 인기 = 우체국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린 또 다른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존보다 30~40%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동일한 통화 품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우체국 알뜰폰이 최근 ‘폭풍인기’를 끌게 된 것은 바로 에넥스텔레콤이 이번에 선보인 ‘A제로’ 요금제 때문이다. 기본요금 없이 매달 50분의 음성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50분 미만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추가 통화 시에는 초당 1.8원의 통화료가 부과된다. 기존 통신사보다 매달 1만2000원 저렴하고 24개월간 28만8000원이 저렴하다.

두 번째로는 이지모바일이 내놓은 ‘EG 데이터선택 10G 399’ 요금제다. 월 3만9900원(부가세 포함 4만3890원)에 음성과 문자, 데이터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애초 주어지는 데이터 10GB를 소진해도 매일 2GB의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돼 중장년을 넘어 10~20대의 젊은 이용

■ 우체국 알뜰폰 신청 절차(인터넷 홈페이지)



파격적 요금제 잇따라 출시

기존 이통사보다 1~2만 저렴

중년층 겨냥 폴더폰도 내놓아

자에게 인기가 좋은 상품이다. 기존 통신사에 비해 매달 2만2000원을 아낄 수 있고 2년간 52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입방법 = 우체국 알뜰폰은 사실 휴대전화 사용빈도가 낮은 중·장년층 이용자들에게 추천한다. 알뜰폰 모델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는 없으나, 스마트폰이 아닌 피쳐폰(feature phone)이나,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약정기간이 끝난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폰용 모델을 살펴보면 ‘갤럭시 그랜드맥스’의 인기가 대단하다. 약 1년 전 출시된 삼성의 중저가형 스마트폰으로, ‘A제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서다. 또 같은 요금제를

■ 알뜰폰 인기 요금제

	에넥스텔레콤 ‘A제로’ 매달 50분 음성통화 제공(추가 통화료 초당 1.8원) 기존 통신사보다 매달 1만2000원 저렴
	에넥스텔레콤 ‘EG 데이터선택 10G 399’ 월 3만9900원(부가세별도) 음성·문자·데이터 무제한 매달 2만2000원 저렴
	에넥스텔레콤 ‘스마텔 무제한29’ 24개월 약정·기본료 2만9900원

선택할 수 있는 폴더형 ‘라이프폰’(LifePhone)도 대표적이다.

무제한 요금제 ‘EG 데이터선택 10G 399’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로는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S5’가 있다. 둘다 중고제품으로 각각 28만5000원과 29만7000에 구입할 수 있는 비교적 싼형 모델이다.

얼마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저가형 싼형 스마트폰 ‘루나’(출고가 44만9900원)도 우체국 알뜰폰 통신사 스마텔에서는 29만9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때 ‘스마텔 무제한29’ 요금제(24개월 약정·기본료 2만9900원)를 사용하면 저렴하

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팁(Tip)이다.

우체국 알뜰폰은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 접속한 뒤 ‘020 접수 시스템’에서 개인별 사용량과 선호 단말기에 따라 상품을 추천·신청하면 된다. 이후 2주안에 우체국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접수가 마무리된다. 가입을 마친 뒤 알뜰폰 사업자가 택배로 단말기를 배송해주는 형식이다.

알뜰폰 통신사별 요금제와 알뜰폰 판매 우체국 등은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관장(오른쪽 세번째)이 100만번째 관람객인 김유하씨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국립광주과학관 누적관람객 100만 돌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지난 2013년 10월15일 공식개관을 맞은지 814일째인 6일 누적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날 오후 2시에 100만번째 관람객인 김유하(여·40·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씨 가족에게 과학관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년 특별초대권’과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드론 등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광주과학관은 상설전시관 1·2관 및 천체투영관, 4D상영관, 야외전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설전시물은 206점으로 개관 당시 151점보다 55점이

증가했다.

또 계절에 맞춰 진행되는 계절과학축제를 9회 진행했으며, 공통탐험전 ‘잃어버린 공룡을 찾아서’를 포함한 특별기획전(8회)과 ‘광주발명페스티벌’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과학·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초청, 과학문화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필사아인스포럼(아고라)도 진행 중이다.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관장은 “지난 해 메르스 여파에도 4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과학관을 찾아줬다”며 “다양한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평균 22% 낮춰

약정기간 1~2년으로 줄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해지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인터넷과 휴대전화, IPTV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결합상품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해지시 위약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 약정기간이 길어도 위약금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없고, 일정 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을 줄여줄게 된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의 위약금은 3년 약정이 만료되기 직전 기준 63.8%, 평균 22.1%가 인하될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속인터넷 모델임대료도 모델 취득가 등

을 고려해 최대 67%가 줄어든다.

결합상품 가입조건도 ‘3년 약정’으로 제한할 수도 없게 된다. 약정기간을 1~2년으로 줄여 가입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그동안 약정기간이 길어 상품을 바꾸기 어려웠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전화상담원을 거쳐 해지할 수 있었던 해지절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해지를 위해 수차례 상담전화를 걸고 기다리는 등 해지를 기피하려는 태도 탓에 해지를 할 수 없었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규가입과 약정만료시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강화했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과 정구서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강화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14~17일 밤하늘 수놓을 카타리나 혜성 만나요

올해 밤하늘을 수놓을 유성은 언제 볼 수 있을까?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텀블러(tumblr)·블로그와 트위터를 연동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린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페이지에 올해 주요 천문관측에 대한 정보가 소개됐다.

우선 오는 14일에서 17일 사이 카타리나 혜성이 소용돌이 은하(M51)와 바람개비 은하(M101) 사이를 지나간다. 어두운 밤이면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망원경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NASA는 조언했다.

또 올해 NASA가 안내한 또 하나의 밤

하늘 지도는 오리온자리다. 겨울은 남동쪽 하늘에서 오리온자리를 찾아보기 아주 좋은 시기다. 망원경도 필요 없이 해가 지고 나서 몇 시간 뒤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오는 3월9일에는 부분월식·예정돼 있고, 9월17일에는 부분월식이 있다.

쏟아지는 별뿔별은 8월과 12월에 볼 수 있었다. ‘3대 유성우’로 꼽히는 페르세우스는 유성우는 올해 시간당 150개의 별뿔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8월 11일~12일 밤이 극대기로 예상된다. 또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2월 13일 밤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필뉴스

지난 12월 13일 소유즈 TMA-19호가 발사를 대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찍은 별뿔별.

<NASA>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해드립니다!

밀착토크
등문으로들었쇼 Show

MC 공형진

매주 월요일 밤 11시

MC 홍진영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